

TV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40 40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난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든든생활제	40 반려동물극장 단짝(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나는 몸신이다(재)	00 제18회 KBS 해외동포상 특집다큐 제1편 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05 수목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재)	10 KBC 생활뉴스 3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축제>(재)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길 고요말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킬미 힐미>(재)	00 SBS12뉴스 45 중계방송 인사청문회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1	50 김부정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TV동화 빨간자전거(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키즈 사이언스5(재)
2	00 겹쳐서 세계속으로(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역사저널 그날(재)	30 30? 퓌! 키즈스쿨	00 토크콘서트 화통
3	00 직언직설	05 한국인의 밥상(재)	45 후토스(재)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사이드
4	20 쾌도남마	00 KBS 뉴스4 10 생명최선선(재)	10 자동차부채상 위키 40 TV유치원 콩다콩	00 이야기 보따리 30 우리끼리 탐구생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애니월드 40 동물로 세계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내 마음의 클래식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활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밤새와 생활 05 닥터 365(재)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독한인생 서민갑부(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0 시사타치 때때부때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정미>
8	20 관찰 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형사만이 내사랑>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베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임구정 백야>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한밤의 TV 연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건축가 김철형의 꿈 한반도 통일 디자인 2편	00 수목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	00 드라마 스페셜 <하이드리얼 나>
11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 빅뱅 윤건의 더 콘서트	10 투명인간	15 예코비디즈 즐겨운 家
12	40 먹거리 X 파일(재) ①:50 신대동여지도(재)	50 동행(재) ①:50 영성앨범 신(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유비뱅크	35 나이트 라인 ①:05 씨네포토(재)



권력 암투·치정... 그녀들의 깊은 욕망

김성령·김미숙·최혜진 3색 매력... MBC '여왕의 꽃' 14일 밤 10시 첫 방송

출생의 비밀과 재벌가, 권력 암투, 치정으로 점철된 드라마가 다시 안방극장을 찾아왔다. 오는 14일 밤 10시부터 방송되는 MBC TV 주말드라마 '여왕의 꽃'은 이러한 내용으로 포장된 통속극이다. 그럼에도 드라마에 눈길이 쏠리는 것은 같으면서도 다른 욕망에 사로잡힌 세 어머니 수 때문이다. 극 중 한 어머니는 오직 출세만을 위해 단돈 100만 원에 딸을 버린다. 다른 어머니는 재벌가 후처로 들어가 낳은 아들을 후계자로 키우려고 발톱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 또 다른 어머니는 가문을 더 키워야 한다는 야심에 딸을 어떻게든 재벌가로 시집 보내고자 전전긍긍한다.

김성령(48)이 "지옥에 떨어져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갖고 싶은 것을 가지겠다"며 이를 악문 채 발버둥치는 레나 정을 맡았다. 어린 시절 돈 때문에 엄마를 잃은 그녀는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버림받은 뒤 그와의 사이에 낳은 딸 이슬(이성경)을 버린다. 미국에서 20년 만에 돌아온 그는 우수 식품업체 TNC 그룹 장자 박민준(이종혁)을 만나 위험한 베틀에 나선다.

10일 마포구 삼양동 MBC사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김성령은 "레나 정은 드라마 속 여자 중 제일 불쌍한 존재"라면서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여자"라고 변호했다.

이성경은 SBS TV '괜찮아, 사랑이야' 이후 처음 출연한 이번 드라마에서 단번에 주인공을 꿰찼다. 집안이 망하자 아버지 회사를 인수한 TNC그룹 회장의 후처로 들어가 그 사이에 아들 재준(윤박)을 낳은 마희라 역으로 김미숙(56)이 등장한다.

김미숙은 "마희라는 결혼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여자"라면서 "30년간 함께 산 남편에게 한 번도 속내를 내보이지 않고 완벽히 위장하고 살아가는 여자"라고 설명했다.

김미숙은 이어 "제가 지금껏 약력을 5~6년 맡았는데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재미있는 약역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작품마다 안정적이면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는 정영남(42)이 가문을 더 키우려는 야심만만한 병원장 최혜진 역으로 등장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최혜진은 딸을 정략결혼 희생양으로 삼는 것도 마다치 않는 데다 딸을 통제하기 위해 손찌검까지 하는 인물이다. '전설의 마녀' 후속으로 방영되는 드라마는 "막장" 비판을 받을 정도로 자극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7년 만에 돌아온 이대영 PD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와 재회한 딸의 복수가 추가 되는 드라마는 아니"라면서 "특별한 향기가 나는 드라마"라고 밝혔다.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토크쇼 부모-그녀의 품격	14:30 머물도사	19:00 곤
05:40 성공시대 가능한가(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초능력 특공대	19:30 EBS 뉴스
06:10 세계의 눈(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두끼 탐험대	19:50 사선에서
07:00 뽀빠에 친구(재)	11:10 다큐 오늘	15:30 뽀빠에 친구	20:40 다큐 오늘
07:15 책과 땅(재)	11:20 세계테마기행 (순수와 모험의 땅 라오스)	15:45 부흥! 브루미즈	20:50 세계테마기행 <파키스탄 카람코리 하이웨이>
07: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맹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봄이 오는 만경강>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결자 다류멘터리	16:20 원더볼즈	21:50 EBS 다큐 프라임 <봄이 오는 만경강>
08:00 당동맹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30 우당탕탕 아이쿠	22:45 극한직업
08:20 로보카 폴리(재)	13:10 워마 없이 살아보기(재)	16:45 책과 땅	23:35 세계견문록 아름다운 <아시아 연속 기행>
08:35 방귀대장 뽀빠이	13:40 사이인	17:00 방귀대장 뽀빠이(재)	24:10 한국영화특선 <달빛 길어 올리기>
08:50 코코콩 3	13:50 알팔라 뽀빠이	17:15 풍선 꼬끼리 발루보	
09:05 원더볼즈(재)	14:00 마야의 모험	17:30 두디디	
09:20 풍선 꼬끼리 발루보	14:15 정글북 2	17:45 로보카 폴리	
09:35 이업 스페이스 정글		18:00 생방송 토티! 보너하니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II-읽어깨님>	12:10 올림포스 <국어II-읽어깨님>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 <고교 영어독해-junior>
01:40 " <화물과 통계>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B>
02:30 "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포스 <화물과 통계>
03:20 " <수학I>	15:40 " <기하와 벡터>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16:30 " <수학II>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05:00 뉴탐스런 <화학I>	18:10 뉴탐스런 <화학I>
06:00 " <지구과학I>	19:20 " <지구과학I>
06:40 " <세계지리>	20:00 2016 수능특강 <수학Ia>
07:30 " <법과 정치>	20:50 " <영어A>
08:2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21:50 특집 2015 고 3 <영어A>
09:10 " <이은주의 수학II>	3월 학력평가 심층분석 <수학I>
10:10 2016 수능특강 <수학I>	22:30 생방송 2016 수능대비전략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6:20 " <사회 5-1>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50 " <사회 6-1>
08:30 2015년 9·7급 공무원 시험 문제풀이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 5-1>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00 TV 중학 <국어⑤⑥>
09:50 " <수학1(하)>	18:40 " <수학3>
10:30 " <도덕>	19:20 필독중학국어 <시>
11:10 " <국어③④>	20:00 EBS 인문학특강
11:50 " <수학2(하)>	20:50 EBS 기획시리즈
12:30 EBS 특강	21:40 EBS UCC 공모 나쁘디
13:10 중학 학습비법특강 <영어I>	22:00 중학 학습비법특강 <수학3>
13:50 " <영어2>	22:40 TV 중학 <국어⑤⑥>
14:30 " <역사>	23:20 필독 <사회2>
15:20 만점왕 <사회 3-1>	24:00 왕기초 중학 <수학3>
15:50 " <사회 4-1>	24:30 백점공략 <과학3>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1일(음 1월 21일 丙戌)

子 48년생 기본적인 관계와 입지를 중시하라. 60년생 선택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니 받아들이는 편이 낫겠다. 72년생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할 수도 있다. 84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발전을 이끈다. **행운의 숫자** : 32, 70

丑 49년생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61년생 까다로운 절차와 내용의 파악으로 인해서 고역이겠다. 73년생 인식을 잘 해야 쉽게 적응할 수 있느니라. 85년생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1, 42

寅 38년생 호기심의 갈증을 더하는 비밀이 보인다. 50년생 점점 복잡해지리라. 62년생 과감히 실행해야 할 때다. 74년생 방심과 인간적인 배려는 별개의 개념임을 알아. 86년생 집착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8, 87

卯 39년생 불쾌와 기쁨이 더불어 올 수다. 51년생 갈증을 달랠하는 기로에서 있다. 63년생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는 것이 낫다. 75년생 직접적인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이 옳겠다. 87년생 유혹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1, 93

辰 40년생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낫다. 52년생 중심에서 바깥으로 뻗어 나가는 구도이다. 64년생 전전긍긍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76년생 집중 해야만 효율성이 제고 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0, 12

巳 41년생 간절히 필요했던 이가 스스로 나타나는 격이다. 53년생 고정 관념을 버려야 해결 된다. 65년생 실책이 있지 않을까 우려 되느니라. 77년생 지나치다 보면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55, 04

午 42년생 가까운 이와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다. 54년생 길사와 연결되는 행운이 따른다. 66년생 알고 있다하더라도 흔연히 대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78년생 복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59, 21

未 43년생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가 되었다. 55년생 미리머져 왔던 일들이 재게 되리라. 67년생 잘 하면 파격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79년생 직접 챙기지 않으면 빈틈을 보이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69, 60

申 44년생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옳다. 56년생 모든 것을 차지하고 핵심으로 들어가야 할 판세이다. 68년생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겠다. 80년생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라. **행운의 숫자** : 61, 50

酉 45년생 돌발 사태가 보이니 현명하게 대처하라. 57년생 방심하 다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느니라. 69년생 절차대로만 진행한다면 순조롭다. 81년생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 **행운의 숫자** : 30, 86

戌 46년생 어떠한 기준이나에 따라서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리라. 58년생 아작은 활발하나 갑자기 중단 될 수도 있다. 70년생 불합리하다면 빨리 개선하라. 82년생 가장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78, 31

亥 47년생 힘이 드는 하루가 펼쳐 질 것이니 각오하라. 59년생 드러나지 않은 범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 71년생 기존의 계획에 몇 가지만 추가하면 된다. 83년생 결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갖가지 난재가 담겨있다. **행운의 숫자** : 41, 9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거꾸로 수업' 학습 방법의 긍정적 변화

KBS 특별기획 19·20·27일·4월3일 밤 10시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이라는 것이 있다. 2000년 대 후반 미국 콜로라도 시골학교에서 시작된 '거꾸로 수업'은 학생들이 먼저 온라인을 통해 선행학습을 한 뒤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복습하는 전통적인 공부법을 뒤집은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꾸로 수업'은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수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1TV는 특별기획 4부작 '거꾸로 교실의 마법 - 1000개의 교실'을 19~20일, 27일과 4월3일 밤 10시에 방송한다. 앞서 지난해 3월 부산의 두개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벌인 거꾸로 교실 실험의 효과를 방송했던 KBS는 이번에는 지난해 2학기 전국 100개 초중고의 교사 200여 명이 동시에 주도한 거꾸로 교실의 결과를 공개한다.

1부 '거꾸로 교실 바이러스'에서는 전국에서 교실을 뒤바꾸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200여명의 교사들이 봉건적 공교육을 재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과정을 소개한다. 2부 '졸짜들의 반란'에서는 고교입시에서 뒤처진 하위권 학생들이 모인 경기 오산 매홀교에서 일어난 변화를 조명한다. 이곳 학업 분위기는 말 그대로 봉고상황이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도 극한에 달해있었다.

그런데 국어선생님이 거꾸로교실을 시작하자, 수업에 몰입하는 학생이 대거 나타나며 교실 분위기는 요동친다. 만만치 않은 저항도 있지만, 많은 교사들이 이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간다.

황수경 아나운서, '열린음악회' 떠난다

KBS 1TV '열린음악회'를 지난 17년간 진행해온 황수경(44·사진) 아나운서가 이 프로그램을 떠난다. 황 아나운서는 1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KBS 불개편을 맞아 '열린음악회'를 떠나겠다는 뜻을 제작진에게 밝혔"다며 "불개편이 정확하게 언제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달까지는 녹화를 진행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도 '열린음악회'의 녹화를 진행한다. '열린음악회'는 지난 1993년부터 방송되고 있는 KBS의 간판 음악 공연 프로그램이며, 황 아나운서는 1998년 200회부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매홀교 외에도 전국 곳곳 고등학교에서는 수학을 포기한 저학력 학생이 거꾸로 교실을 통해 극적 반전을 이루며 한 학기 만에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놀라운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다.

3부 '달팽이, 질주하다'에서는 거꾸로 교실이 궤도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이 학업뿐 아니라, 성격과 태도에도 변화를 보이는 사례를 소개한다. 삼승가출 학생이 교실로 복귀하고, '일진' 학생이 폭력 성향을 버리고 사회성을 회복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절망과 무기력에 잠겨있던 아이들의 잠재력이 되살아난다고 프로그램은 전한다.

4부 '수업의 진화'에서는 학생들이 한발 더 나가 스스로 최고의 수업 방법을 찾고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조명한다. 경북 의동중 배현경 교사는 "애들이 참 신기한 게 서로 디자인한 수업을 보고 배우는 게 있다. 어떤 제안을 정하고 그 다음에 알아서 규칙을 정해서 그걸 지키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구나, 생각을 했다"고 말한다.



한편, 이날 황 아나운서가 KBS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으나 이에 대해 그는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4월까지의 미리 잡아놓은 방송 스케줄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보도가 나와 당황스러운 상태다. 현재까지 드릴 말씀이 이 정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